

쉼의 의미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짝 짜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소 느슨해진 마음과 일정으로 여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여 떠납니다. 하지만 누구는 휴가를 다녀오는 날부터 진짜 휴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휴가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몇 년 전 울주 배내골에 있는 사설 연수원에서 본당 가족 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지쳐 잠들기’라는 주제로 성경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성경과 관련된 놀이도 하고 오후에는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계곡에서 흘러들어와 어른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연수원 울타리 밖 상류 계곡에서 몇 군데 지점을 돌며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둘러보러 갔더니 역시나 교리교사의 진행에 따라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눈을 돌려 보니 먹다 남은 수박, 돼지고기들, 마구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역겨운 악취와 빈 술병들, 비닐봉지 등이 온 계곡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놀았어요’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듯했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간 자리가 쓰레기로 가득 찬다는 소식이 영상과 함께 뉴스 시간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과연 ‘쉬러 간다’, ‘휴가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 함께 일상에서 떠나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고 버리고 오기 위해서일까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것을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고쳐서 우리 공동의 집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통합 생태론의 으뜸 주역입니다.’”(사랑의 기쁨, 277항) 여기서 말씀하시는 ‘통합 생태론’이란 환경 문제만을 따로 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와 일상생활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더구나 휴가는 이러한 것을 더욱 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는 것을 친교라고 합니다. 올해 휴가는 먹고 마시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와 달과 별, 벌레 한 마리와 작은 들꽃 한 송이 등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외딴곳으로 나가서”(마르 1,35) 하느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았단다”
(루카 2,48)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4)

성모 마리아

교회는 하느님께는 흠숭(欽崇, adoratio)을 그리고 성인들께는 공경(恭敬, veneratio)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모님께는 성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예(上敬, cultus hyperdulia)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께 관한 교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죄 없으신 잉태”입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가톨릭교회 교리서 493항)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생 동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496항)하고 이는 “강생에서 취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주도권을 나타낸다”(503항)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늘에 올림을 받은 분”입니다. 이는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966항) 무엇보다도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증거요 모범이십니다.(루카 1,38 참조) **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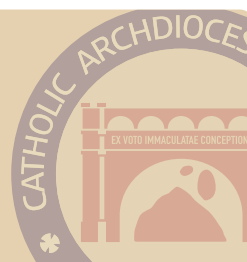


교황님 한 말씀

형제애를 향한
‘한 걸음 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분열, 편견, 편협한 마음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 제10차 세계가정대회 개막식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 중 -



이달의 성인

사도 성 요한



사도 성 요한(Joannes, 12월 27일)은 제베대오의 아들이며, 성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후 만찬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요한 13,23)는 복음사가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에게 당신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요한 19,

26-27)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발현하실 때에도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앞서, 부활 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요한 21,7)

신약성경의 요한 복음, 세권의 서간(요한 1·2·3서)과 요한 묵시록이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의 작품이라고 알려집니다. 사도 성 요한의 상징과 문장으로 독수리가 사용됩니다. 이는 요한 복음서가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높고 깊은 경지에서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은 뱀이 든 성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자주 묘사됩니다. 성 요한이 독이 든 잔을 받고 축복하자 그 독이 변했다는 전승에 기원합니다.

6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성 요한의 무덤으로 알려진 자리에 ‘사도 요한 성당’(현재 튀르키예)을 건립하고 봉헌하였습니다. 성 요한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을 강조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금빛**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의 미사 경문을 배워볼까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어]

Lord, have mercy.
로드, 해브 멀씨.



[일본어]

主よ、あわれみたまえ。
슈요, 아와레미타마에



[중국어]

上主，求祢垂怜。
상주 치우니추이리엔.



[베트남어]

Xin Chúa thương xót chúng con.
신 쭈어(아) 트엉 쏫 쯡 쏬.



[스페인어]

Señor, ten piedad.
세뇨르, 텐 페에달.

대구 성심유치원 환경교육 현장



멋진 지구인이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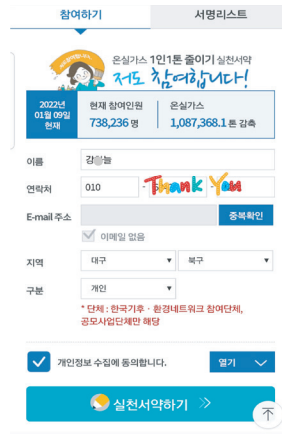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 지구와 환경, 생태와 생명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각 본당에서도 환경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도 생태환경 교육에 참여하며,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금빛신문은 80여명의 원생이 함께 환경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성심유치원(대구 비산 1동, 원장 : 손 안젤라 수녀)을 찾았습니다. 생생한 환경교육의 현장을 7월 생태<특집>에서 소개합니다.



100보 점프

재활용 만들기
(생수병으로 만든 물소리개)

분리수거 하기



탄소중립실천



재활용 놀이

성심유치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손 안젤라 원장 수녀님께 여쭙습니다.

수녀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읽긴 했지만 우리 원생들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구대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발간한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2021)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을 부교재로 채택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원생들에게 환경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육청 연계 환경 교육 과정과 함께 올해 출판된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I’(2022)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교육의 전반을 담당하고 계신 박 미카엘라 부장 선생님에게 들어봅니다.

원생들 교육은 계절과 날씨를 고려한 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 내지 두 개의 실천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생태환경 공부와 의식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대구 아쿠아리움에 소풍을 갔습니다. 몇몇 원생들의 반응은 단순히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신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불쌍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I’ 안에 있는 QR코드 가운데 함께 시청한 영상 중 쓰레기에 대한 장면 떠올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생들이 교육 후 수중 생물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에서 함께 했던 환경교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성심유치원 원생 이 효주아네스 어린이가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거북이 몸에 상처가 나고 쓰레기를 먹이인 줄 알고 먹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래요.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 해서 아빠랑 함께 했던 옷걸이 펜싱이 좋았어요. 앞으로 공부한 것들을 실천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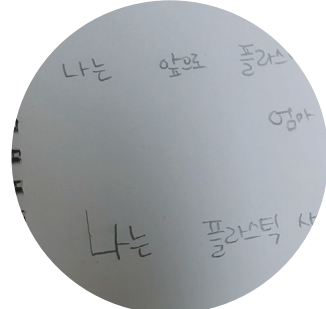
성심유치원에서는 정기적인 점프, 고래 그리기, 물 아껴쓰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생태 실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의식화’하는 것이 생태환경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의식할 때, 불편을 감수하면서 각자의 생활 모습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공동의 집, 지구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 뜻을 모아 실천해 나가는 밝은 미래와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 · II’의 실제적인 쓰임새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를 열심히 실천하며 인터뷰에 응해주신 성심유치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빛**



물절약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독후활동

보자기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선언문



재활용 만들기

부부 이야기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말자

2021년 2월 우리 부부는 혼인 30주년을 맞았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했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온 작은 이벤트를 가졌다.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를 찾아 30년 전에 입었던 커플티를 꺼내 입고 빛바랜 기념사진 속에 남아 있는 그 장소에서 그때의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에 젖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벨다와 나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마음만은 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처음 맞이하는 2022년 기념일에는 그동안 직장을 핑계로 미뤄왔던 장기간 성지 순례를 포함한 더 멋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혼인 31주년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냈다. 다행히 며칠 동안의 입원으로 벨다의 건강은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품었던 계획들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벨다를 처음 본 것은 1982년 가톨릭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히 40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동성동본 간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누이 같은 선후배로 다정하게 지내자던 우리들의 다짐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금지된 사랑은 더 애뜻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은 절실했다. 양가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능했지만, 혼인이라는 절차가 우리 두 사람을 사랑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었다. 연애 시절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던 대화의 방식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갈등만 증폭시켰다. 연년생의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벨다를 보면서 그것은 아내로서의 당연한 역할이고 나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정에 소홀하면서도 가장으로서 불가피하다는 고집으로 살았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실망으로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었고 헤어나오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술한 잔관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서약했지만 우리 둘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힘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혼인 8년째 되던 1999년 8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ME주말을 체험하게 되면서 머리의 회로가 바뀌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지도 못한 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부부가 되었다. ‘동화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가장 비극적 결말’이라는 어떤 동화작가의 말처럼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랑 여정의 출발인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도 살을 맞대고 살다보면 부부의 사랑이 유지되는 줄 알았다. 부부로서 사랑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매 순간 절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결심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ME주말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남편으로서 벨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은 나의 의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의 마음을 벨다에게 전하는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성장한 환경 즉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사회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 부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성소(聖所)다.’ 자식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퇴임 후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고 쉽게 말하지만 사랑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완성품으로 툭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함께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는 길은 지금 당장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 배우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미루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박경현 프란치스코♥박영자 벨다 부부
(ME 대구협의회)



한줄

성경말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4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될 것이다. (신명 5,16)

라떼는

주일학교 여름행사



1979년 남산성당 여름 산간학교(고령군 쌍림면 신촌)



1981년 대구대교구 여름성경학교

(제공 :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4)

“주님 제 자녀와 함께하심을 잘 압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갑니다. 확장된 만큼 새롭게 만나는 상황과 낯선 타인들은 부모처럼 무조건 허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네.”라며 종종 실망과 좌절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실망,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 그런 경험들이 자녀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는 집중해야겠습니다.

자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령, 감정적 질책 또는 협박은 상황을 종료하고 일시적으로 행동을 소거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과 어조로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얘야, 지금 이 행동은 멈춰.’라는 의미를 꼭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적응적 행동을 멈춘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적응적 대안이나 허용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타협해 마련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자녀가 대안을 사용하여 변화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자녀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수행한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적절한 지지와 칭찬은 변형된 적응적 행동을 자녀가 내재화하도록 촉진합니다.

자녀는 때때로 실수나 실패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거부나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는, “이런 상황에서 실망감, 수치감, 좌절감이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져.”라는 감정의 수용과 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부모의 공감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보다 먼저 속상해하고 수치심에 화를 낸다면 자녀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에 대한 부모의 화나 걱정을 방어하느라 자기 조절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공감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기보다 자녀의 생각을 들어주고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청한 내용에 기쁘게 응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녀가 진정과 위로로 실패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감당하게 되면 스스로 실패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면서 사고력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이런 전 과정을 상처가 되지 않는 실패, 즉 최적의 실패(optimal frustration)라고 합니다. 최적의 실패 경험은 자녀가 지향성을 갖고 계속 도전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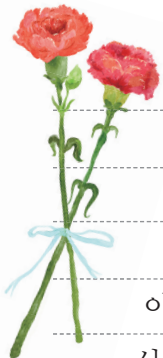
부모로서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고 허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최적의 실패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봅시다. 그래도 어렵다면 그분께 청합시다. “주님 제 자녀와 늘 함께해 주세요.”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아버지 힘내세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구십이라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큰 바윗돌이 되어 어머니와 삼 남매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고등교육을 받으셨다는 이유로 세간살이 없이 신흥살림을 차리셨다지요. 생활이 어려워 배운 지식은 접어두고 과일장사, 국수공장, 건빵공장, 섬유공장....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셨네요.

키도 크시고 남자답게 생기신 아버지가 저희는 항상 무서웠답니다. 어릴 적 학교 소풍 때 귀한 라디오(카세트)를 가져갔다고 불호령을 내리셨고, 회사 회식하느라 늦을 때는 고함도 치시고, 큰 아들한테는 특히 더 엄하게 나무라셨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서울살이 하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아이를 하나 둘 낳다 보니 아버지가 덜 무서워졌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무섭고 건강해 보이시던 아버지가 팔순이 되시니 어깨가 앙상하고 걸음도 느리시고 목소리도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자주 찾아 뵙고 잘해 드려야지 했는데, 얼마 전 큰 병에 걸려 걸리셨지요.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남들은 “살 만큼 사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사셨으면 합니다.

병마를 잘 견디시며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볼 때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이종완(던스턴)을 어여뵈 여기시어, 살아 계시는 동안 고통 없이 지내시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딸 이정애 아가다 올림 (성토마스 성당)



2002년 이종완 던스턴 아버지 칠순잔치 (좌 이정애 아가다, 중앙 아버지)

노년의 영성

사랑은 신앙의 척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주검 앞에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여 나를 추모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들은 나의 무엇을, 어떤 점을 추모할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출세를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추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었을 적에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고 가정을 얼마나 화목하게 이끌었나를 추모할 것이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웃을 얼마나 보살피며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를 칭송하고 추모할 것이다.

노인이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노욕에 빠져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 세우며 고집만 부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노인은 결코 존경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 10월 27일 일반알현에서 하신 주요 메시지를 트위터에서 보았다. “Love is the measure of faith, and faith is the soul of love.”(사랑은 신앙의 척도요, 신앙은 사랑의 영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각자 응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내가 사랑하는 대로입니다. 신앙은 사랑의 혼(魂: soul)입니다.”

이에 앞서 2012년 2월 29일 성 마르타 성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구원은 위대한 업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돈도, 정치나 행정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고 단순한 일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3-17)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갈라 3,27)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영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석돈 시몬
(정평 성당)



子曰 出門如見大賓하며 使民如承大祭하고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 在邦無怨하며 在家無怨이니라
자 알 출 문 여 현 대 빈 사 민 여 승 대 제 기 소 불 욕 물 시 어 인 재 방 무 원 재 가 무 원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뵈온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며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원망함이 없고 집안에 있어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활기찬 노년

하루해가 짧은 금빛노년

- 최옥이(테레사) -



가톨릭 금빛신문은 75세의 나이에 하루해가 짧을 정도로 활기차고 금빛 노년을 사는 최옥이 테레사(포항 죽도성당) 자매를 찾았습니다.

최옥이 테레사 자매는 본당 내 독거노인 방문, 매주 토요일 성당 미화에도 봉사하는 그녀는 최근 4대리

구(대리구장: 최재영 시몬) 교정 사목 후원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문안 인사 정도만 하며 돌아왔는데, 늘 돌아올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집 밖 출입이 어려운 이웃들 생각에 최근에는 문안 인사를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간단한 반찬이나 음료들을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말벗도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짧은 성경도 읽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그녀의 미소 짓는 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최근 맡게 된 교정 사목 봉사도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출입도 힘들었지만, 교정 사목부 신부(부장: 김택수 신부)의 열정으로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재소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작게나마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느님의 작은 도구가 된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취재·촬영: 정순진 도로테야 기자

계절별미

7월의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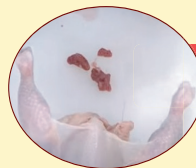


삼계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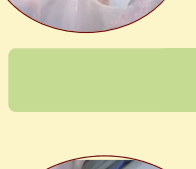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보세요!

재료: 영계 1마리(8호), 찹쌀 1/2컵, 마늘 5쪽, 대추 2개, 인삼 1뿌리, 물 5컵, 소금 1/3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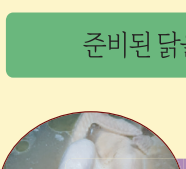
영계는 목과 꼬리, 내장 등을 제거하고 손질한다



찹쌀은 씻어 불린다(20분정도)



닭 배속에 찹쌀, 마늘을 넣고 두 다리를 고정한다



준비된 닭을 대추, 인삼과 물을 부어서 끓인다



끓어오르면 중불에서 1시간(압력솥 30분) 끓인다



Tip! 닭고기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지방이 적어 소화흡수가 잘 된다. 인삼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향암, 스트레스 억제, 원기회복등의 역할을 한다.

가족성지순례 (4)

김범우 순교자 성지

-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



가는길

자 가 용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 → 삼랑진 톨게이트 → 용진일반산업단지 방면
네비게이션 “김범우순교자성지”(성모당 기준 1시간 30분)

대중교통 대구역 → 삼랑진역(1시간 5분) → 삼랑진 2-2 버스 → 덕촌 하차 후 도보 2.6km
(성모당 기준 3시간 20분 소요)

김범우는 한국교회 초창기 신자 중 한 분입니다. 1751년 서울 남부의 명례방(현 명동 주교좌 대성당)에서 중인(中人) 신분의 유명한 역관 집안의 8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84년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습니다. 1785년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집회를 개최하다가 추조(형조) 관리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을사추조적발사건) 김범우는 교회 집회 장소의 집주인일 뿐 아니라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멀리 밀양으로 귀양을 떠나, 유배 중 받은 형벌의 여독으로 1787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의 성당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동굴 성당이며, 성전 십자가는 김범우 토마스의 묘를 발굴할 당시 순교자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돌십자가 형태에서 유래합니다.

이번 여름 가족이 함께 밀양 김범우 순교자 성지를 방문하며, 순교자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기자

노년의 기쁨

작지만 큰 행복

6월 초 셋째 딸과 넷째 딸 부부와 함께한 3박 4일의 속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양양성지를 비롯한 성지순례와 명소 관광과 맛집 투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외손자가 그곳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카톡으로 면허증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로만 생각되던 외손자가 어느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작지만 큰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베드로 형제, 본당 사목평의회 총회장을 부탁드립니다.”하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매 주일미사에만 참여하였지 본당의 어떤 직분이나 신심단체활동도 한 바가 없어 한사코 고사하였지만, 신부님께서는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하시는 부탁 말씀에 2004년부터 본당 총회장직을 맡아 9년 반, 재무평의회 회장 4년을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1코린 4,2)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2006년 그동안 몸담았던 교직을 정년퇴임 한 후 무려한 날들을 보내야 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보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이 또한 큰 행복의 순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 바깥 활동을 전혀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그동안 못한 성지순례도 다니고 제 단체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신앙이 없었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르는 말로 ‘소확행’(小確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 주님께서 더 큰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이건춘 베드로
(평리성당)



독자투고

나의 신앙 역사

저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49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젖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쌀미음으로 젖을 대신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돌이 지난 후에도 병아리다리로 누워서 지내야만 했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숙모님께서 와서 보시고는 죽기 전에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저를 안고 교구청으로 가셨고, 주교님께서 견진성사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1950년 10월 12일입니다.

견진성사를 받고 교구청 마당으로 나오자 안겨 있던 제가 자꾸 내리려고 버둥거리려 내려놓았더니, 꽃을 가리키면서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드립니다. 그때가 워낙 어려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견진성사를 통한 성령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진성사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저는 1955년 초겨울 어느 날에 남산성당 성모 유치원을 다니며 첫영성체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3시간의 공심재가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픈지라 예수님을 처음 모신다는 감동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원장 신부님이셨던 이성만 이나시오 신부님은 어린 저의 눈에는 굉장히 무서웠다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 성사의 은총으로 건강해진 제가 이제는 칠순을 넘긴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노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요즘은 매일 저녁 “선종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바칩니다.

“하늘나라로 갈 때 예수님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김혜란 골롬바
(평리성당)



1955년 성모당, 좌측 필자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대건관 1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한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E-mail. dgfamily@dgca.or.kr

Fax. 053-250-3078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셋째 주일 발행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15)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발표 후 노인들과 함께 (사진출처: 바티칸 뉴스)



기도문



자료

2022년 7월 24일(주일)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두 번째 해입니다.

올해 주제성구는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입니다. 이는 “조부모와 노인이 사회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자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사회, 교회 공동체의 변방에 너무 자주 머물러 있는 조부와 노인들을 다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교구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하려 합니다.

- ①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문 바치기
- ② 청년과 청소년들은 본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웃으며 인사하기 & 홀로 계신 어르신을 방문하여 함께 주모경 바치기
- ③ 어르신들은 본당에서 만나는 청년·청소년에게 축복말 해주기

한 주간(7월 24-30일) 동안 실시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QR코드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금빛**



48호 가정미션 :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족에게 힘이 되는 말 해주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 형태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설문기간 2022. 7.17(주일) ~ 7.29(금)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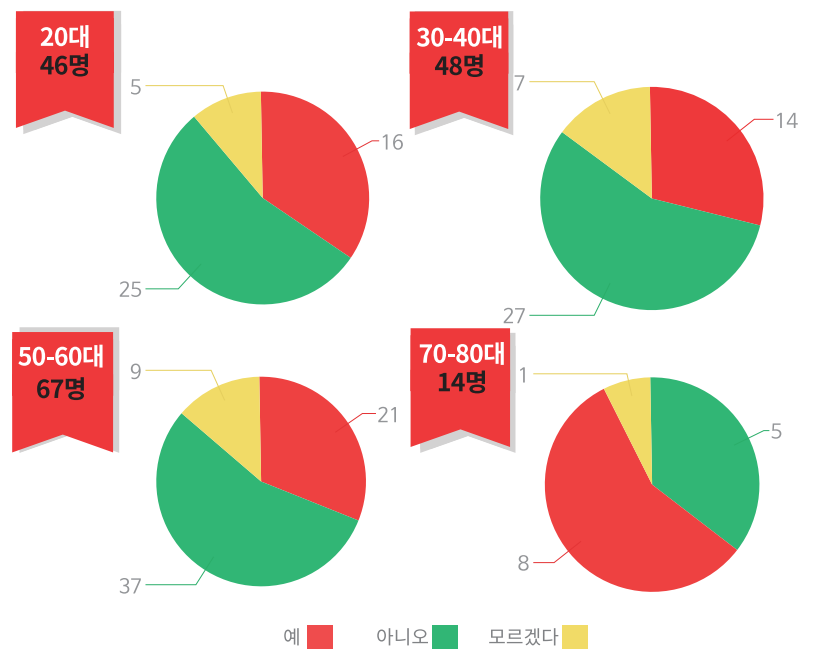
▲ 설문지 링크

48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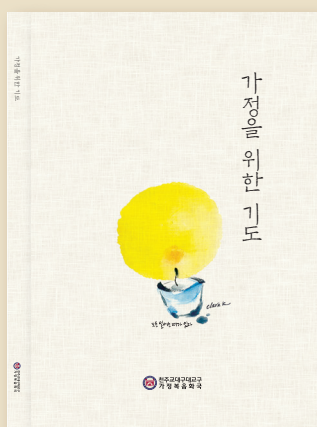
1. 성별 및 연령대 : 남 / 여 (세)
2.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 형태는?
① 식도락형 ② 관광형 ③ 휴식형

47호 설문 결과

주제 : 대학교에 꼭 가야 할까요?



추천도서



‘가정을 위한 기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89쪽 | 148X210 | 3,000원
문의: 053)250-3077-3114

기도하는 가정! 친교의 가정!

가정복음화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기도문들은 생애주기(시기와 상황)에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가족문화생활

이 알로이시아 수녀 한지성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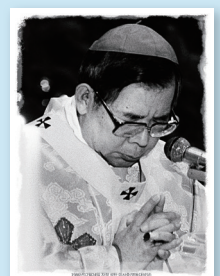
장소 예담갤러리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관 백합식당 2층)

기간 2022.08.01-2022.08.12

가족문화생활

김수환 추기경 사진전



장소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기간 2022.07.20-2022.07.31